

SARS 타격 소멸 불구 화물파업 강타!

통계청, 가동률 73.9%에 투자는 21개월만에 최악 ... 중국은 희생조집

사스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악영향이 커지며 산업생산이 15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53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던 5월 도·소매 증가율이 4달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투자 부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에 사스까지 겹치면서 산업생산이 2002년 5월보다 1.9%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2002년 2월 이후 15개월만에 처음이다.

출하 역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 부문의 증가율마저 4.8%로 떨어졌고 내수출하는 4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5월에는 하락률이 5.7%로 더 커져 전체적으로는 2.2%가 감소했다.

국내경기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 중 자동차 부문은 승용차가 27%·2 감소한 탓으로 마이너스 6.3%까지 떨어졌고 반도체 증가율 역시 12.2%로 4월보다 둔화됐다.

4월에 -4.3%의 성장률로 충격을 주었던 도·소매 부문은 5월에 -4.6%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졌고 특히 자동차 및 연료 부문은 -5.2%까지 떨어져 일반 도·소매 분야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투자부진으로 기존 설비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불황 속에서도 76%선을 웃돌던 평균 가동률도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73.9%까지 급락했다.

설비투자 추계는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8.9%를 기록해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건설 기성액 부문(16.4%)만 민간발주공사의 확대에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함에 따라 재고증가율은 12.5%로 2001년 4월의 12.7% 이후 가장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2/06/30>